

보도일시 (인터넷) 2024. 7. 31.(수) 11:00,
(지면) 2024. 8. 1.(목) 조간

배포 2024. 7. 31.(수) 06:00

소말리아-아덴만 해역 선원피해 주의!

- 해양수산부, 2024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했다.

납치·억류 등의 선원피해는 지난해 상반기(56명)보다 75% 급증한 98명으로 나타났으며, 선박피랍도 4건으로 지난해 동기(2건) 대비 2배로 늘어났다.

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이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상반기(38건)보다 8%가 증가하였다. 그간 아시아 해역의 해적사건은 대부분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해 왔으나, 올해 들어서는 방글라데시 해상에서도 10건(‘23년 1건)이나 발생하고 있다.

납치·억류 등의 선원피해는 상반기 전체(98명)의 절반 이상인 50명(51%)이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 집중되었다. 또한, 선박피랍 사건도 대부분(4건 중 3건)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항해하는 선박의 철저한 주의와 대비가 요구된다.

그간 소말리아·아덴만은 청해부대와 국제 연합해군의 활동으로 해적 활동이 억제되고 있었으나, 최근 연안국의 정세 불안 등 해상치안 공백을 틈타 소말리아 해적이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우리 선원과 선박에 대한 해적피해가 없었던 점은 다행”이라며, “선원 억류피해 등이 집중되는 소말리아·아덴만 해역과 해상강도 행위가 집중되는 아시아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민중 (044-200-5850)
		담당자	사무관	김승찬 (044-200-5857)

참 고

'24년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 (전세계 해적사건) 총 60건 발생, 전년 동기(65건) 대비 약 8% 감소

* 선박피랍 4건(전년 동기 2건) / 납치·억류 등 선원피해 98명(전년 동기 56명)

○ (서아프리카) 총 10건 발생, 전년 동기(14건) 대비 약 29% 감소

○ (소말리아·아덴만) 총 8건* 발생(전년 동기 피해없음)

⇒ 후티반군 공격 이후('23.11~)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의 해적활동 재개 및 활동범위 확대

* '24년 상반기 해적공격 사례는 총 24건(잠정)이 보고(국제해사국 해적정보센터)되었으나, 사건정보가 명확한 8건을 공식통계로 집계

○ (아시아) 총 41건 발생, 전년 동기(38건) 대비 약 8% 증가

⇒ 방글라데시 해상강도 사건 급증 / ('21년) 없음 → ('22년) 7건 → ('23년) 1건 → ('24년 상반기) 10건

○ (중·남미) 총 1건 발생, 전년 동기(13건) 대비 약 92% 감소

□ (인명피해) 총 98명 발생, 전년 동기(56명) 대비 약 75% 증가

* 인질(억류) 85명, 납치 11명, 위협 2명

【연도별 상반기 해적사건 발생 건수(2020 ~ 2024)】

(단위 :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간 총 발생건수		195	132	115	120	60 (상반기)
상반기	계	98	68	58	65	60
	서아프리카	35	22	12	14	10
	소말리아·아덴만	-	1	-	-	8
	아시아	42	28	32	38	41
	중·남미	17	16	13	13	1
	기 타	4	1	1	-	-



● = 해적 공격시도
 ● 해적 승선
 ● 총격피해
 ● 선박피랍
 ● 해적 의심선박